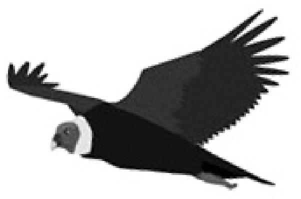
건물 유리벽 새들의 무덤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새들 돌진 … 1년에 800만마리 부딪혀 죽어

환경부,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 저감대책 추진

연간 800만마리의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과 충돌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연간 800만마리가 넘는 새가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조류 충돌 원인에 대해 새는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류는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자침서'를 마련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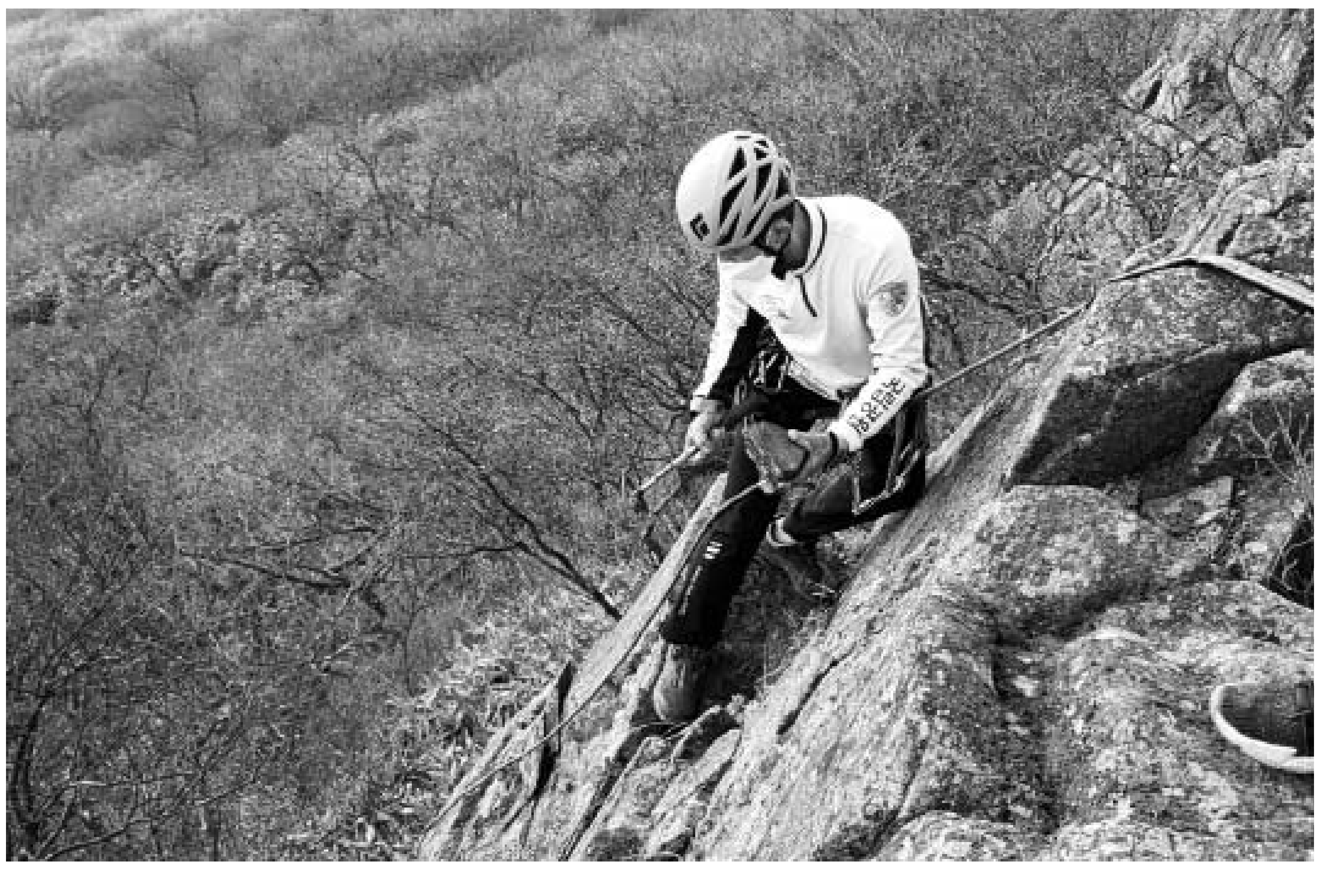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죽고 있다"라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해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산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산 백마능선 낙석 제거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들이 최근 국립공원구조대, 무등산 119 특수구조단 등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무등산 백마능선 급경사지에서 낙석제거·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광주환경운동연합,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광주환경운동연합이 "'2차 라돈측정기 시민대여사업'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미리 전화 예약을 하면 예약 날짜에 맞춰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기간은 한 사람당 1대씩 1박2일이며 예약일 오전 9시~오후 6시께 대여가 가능하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반납하면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아닌 경우 보증금 1만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측정기를 반납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폐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부터 4개월한 진행한 1차 대여 사업에서는 총 175건 중 18%(33건)가 라돈 농도 기준치(148Bq/㎥)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라텍스 제품, 침대 매트리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차 대여 사업에서도 시민들이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대책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문의는 전화(062-514-2470)로 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미세먼지 저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

환경공단, 4월 30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4월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생각(아이디어)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공모 제안서에는 일상생활, 과학기술 등과 접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담겨야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은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1단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기존 미세먼지 대책 등과의 비슷한 점을 검토를 받게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5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원 등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폭탄 제조 등 온라인 유해 정보 여전히 판친다

사제폭발물 시연, 연막탄 제조 등 유해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은 지난해 신고한 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만들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유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게시물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한 유해정보는 1만6749건에 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신고받은 유해정보 중 실제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7144건(4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게시 차단을 요청해 1천111건을 삭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친환경 도시락 즐기세요

지리산·다도해 등 국립공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카톡 '내 도시락 부탁해' 주문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특산음식으로 구성된 친환경 도시락을 공원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산행 도시락' 사업을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립공원 산행 도시락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시락 준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후 지리산·다도해·경주·속리산·가야산·태안해안·월악산 등 8개 국립공원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인근 도시락 업체 중 맛, 청결도,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해 소백산 마늘도시락, 속리산 대추도시락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을 선정했다.

도시락은 수저, 용기를 포함한 모든 구성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했다.

탐방객은 카카오톡으로 도시락을 간편하게 주문하고 산행 당일 출발지점 탐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아 하산 지점 탐방지원센터 수거함에 빈 도시락을 반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후 친구를 맺어 1대1 상담(채팅)으로 주문하면 된다.

도시락 이용 요금은 1개 당 7000~8000원이며, 계좌이체나 현장(탐방지원센터)에서 지불하면 된다.

다만, 도시락 주문은 산행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최소 하루전 오후 5시까지 주문해야 한다. 주문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예향 NAVER 공식 포스트 바로가기